



1

도심 속 문화예술공간, 유중아트센터

글. 최유진 편집팀장 사진. 한혜정 기자, 유중아트센터 · 전강욱 제공

도심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문화는 어디까지일까. 일반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 음악 공연, 미술 전시 등이 문화예술의 범주에 속하고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 일명 '문화생활'을 즐긴다. 제법 문화적인 생활에 익숙해진 대중들에게 복합문화공간은 친근한 곳이 되었고, 이제 그들은 좀 더 특별한 것을 찾는다. 특별한 공연, 특별한 전시, 특별한 공간. 도시 한 가운데 자리한 유중아트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반응하는 곳이다.

유중재단이 마련한 예술의 공간, 유중아트센터는 음악과 예술, 휴식이 공존하는 곳이다.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편안하게 예술과의 만남을 추천하는 이곳은 카페부터 갤러리, 콘서트홀, 작가들의 스튜디오와 연습실 등이 마련되어 있는 문화예술전문기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2

1, 2 1월 12일까지 유중갤러리에서 열린 전강욱 개인전 <중력-기울어진 풍경> 전경
3, 4 유중아트센터 1층에 위치한 카페 드 유중. 삼일목 카페인 이곳에서는 월 프로젝트를 통해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3

유중아트센터 건물 1층에 마련된 카페 드 유중은 사진이나 회화 등의 작품과 차,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공간이다. 차를 판매하는 하는 것은 물론 공간의 벽면을 활용한 월 프로젝트(wall project)를 통해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이곳은 '삼일목 카페'로 자연적 콘셉트를 선보이고 있다. 스트레스 완화와 면역기능 증대에 좋다고 알려진 편백나무에서 추출한 100% 순수정유를 액상기화장치로 통해 분사, 공간 전체에서 삼일목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공간을 꾸민 이곳은 기네스에도 등재된 특별한 장소이다. 신선한 재료로 만든 차와 스낵도 카페의 자랑거리다. 아트센터가 마련하는 일반적인 휴식공간겸용 카페와 달리 전문적이면서도 특별한 기능으로 이미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열리는 월 프로젝트 전시는 유중갤러리의 기획으로 이루어지며 2월에는 김차영 작가의 전시 <Exit Play>가 3월 5일까지 열린다.



4